

시멘트값 인상 예고... 레미콘·건설업계 '한숨만'

쌍용양회·동양 "8.8%·9.5% 올리겠다"

지역영세업체들 "원가 상승 경영압박"

시멘트 회사들이 연초부터 잇달아 10% 가량의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레미콘 업체 및 장기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멘트 업체들은 전기료 등 원가상승으로 시멘트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레미콘 및 건설업계는 당장 반발할 태세다. 16일 시멘트 업체에 따르면 매출 1

위인 쌍용양회는 14일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현재 t당 7만36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8.8% 인상하기로 하고 레미콘사와 건설사 등 거래처에 통보했다. 인상 시점은 3월1일부터로 잡았다. 앞서 8일에는 업계 2위의 동양시멘트가 다음달 27일부터 t당 8만6000원으로 9.5%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

을 발송했다.

시멘트 가격은 2012년 3월 6만7500원에서 7만3600원으로 9% 인상한 뒤 2년 가까이 이 금액이 유지됐다. 업계는 지난해 초에도 한차례 가격 인상을 추진했으나 레미콘 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조사 등으로 인상안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원가 비중이 높은 전력요금이 상승한다든가 매년 4%씩 상승한 해상운송요금 등 물류비 부담이 커져 올해는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와 레미콘 회사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이 건설원가 상승 및 레미콘 회사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가격도 올라야 하는데, 건설사가 인상을 거부하면 물리지 못해 영세업체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시멘트 연료인 유엔탄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고 원화 강세로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등 가격 인하 요인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 가격

인상은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인상되기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 없어,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레미콘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가격은 정부와 시멘트, 레미콘, 건설사 사이에 얽힌 실태가 풀려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시멘트 가격의 인상 요인이 많지 않은 만큼, 인상 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

2년 1개월만에 국내판매 1000만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국내시장 누적 판매량 1000만대(공급 기준)를 돌파해 '국민 노트'로 자리매김했다. <사진>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갤럭시 노트2'와 '갤럭시 노트3'의 흥행이 이어지며 2년1개월 만에 국내시장 1000만대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기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를 허물며 탄생한 '갤럭시 노트'는 큰 화면과 필기 기능이 탁월한 'S펜'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으며 삼성전자가 시장 선두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세 모델 모두 글로벌 텐밀리언(Ten Million·1000만대) 셀러를 달성한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갈수록 판매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하기까지 '갤럭시 노트'는 9개월, '갤럭시 노트2'는 4개월, '갤럭시 노트3'는 2개월이 소요돼 전작에 비해 판매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추세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국내 시장 1000만 대 돌파를 기념해 '천만이 노트하다! 갤럭시 노트 펜 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포스코 차기 회장에 권오준 사장

포스코 차기 회장에 권오준(64) 포스코 사장(기술부문장)이 내정됐다. 포스코는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권 사장을 최고경영자(CEO) 후보인 사내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 회장 내정자는 3월14일 정기 주총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후 3년간 포스코를 이끌게 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유상부·이규택 전 회장, 정준양 현 회장에 이어 내부 인사가 CEO를 계속 맡는다. 이영선 의사회 의장은 "철강업체 전체가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권 사장이 고유기술 개발로 장기적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등 포스코그룹의 경영혁신을 이끌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양=박영진기자 py4079@



권 회장은 "전 임직원의 힘을 모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이끌겠다"며 "국민이 자랑하는 기업, 국가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 금속학과와 미국 피츠버그대(공학박사)를 졸업했다. 1986년 포항제철 출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입사해 포스코 기술연구소장, RIST 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포스코 기술부문을 맡고 있다. /평양=박영진기자 py4079@



16일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 청사 이전식에서 김병복(왼쪽 세번째) 호남지역본부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정부 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올해 모두 9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 건설임대주택이 약 5만가구, 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4만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의 5대 정책 목표 중 하나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6조6천781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 방향은 두 갈래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행복주택 건설과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일터와 가까운 도

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약 5만가구가 올해 준공된다. 작년(3만7000가구)보다 17% 늘어난 규모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이 약 2만8000가구다. 올해 새로 사업승인되는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작년(5만6000가구)보다 14%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등을 사거나 전세로 얻어 임대해주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4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저소득 대학생 몫이다. /연남뉴스

한국감정원 호남본부

삼우지구로 사옥 이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가 16일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 옛 보혜사옥으로 이전했다. 김병복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날 이 전식에서 "공통주택 등 각종 부동산 정보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수익 달성에도 힘을 쏟아 한국감정원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주요 업무였던 감정평가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이양하고, 부동산 가격 조사·통계 등 공적 기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전담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부동산 통계 생산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취업에 가장 불필요한 스펙은 어학연수

인사 담당자들 "직무관련 자격증이 가장 중요"

취업에 가장 불필요한 '스펙'은 어학연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해 12월 5~20일 기업 인사 담당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7.7% (119명·복수응답)가 어학연수를 가장 중요하지 않은 스펙으로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봉사활동(31.0%), 학벌(28.8%), 토익점수(27.2%), 수상경력(21.2%) 순으로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스펙으로 조사됐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은 직무관련 자격증이었다. 절반에 가까

운 인사 담당자(46.8%·148명)의 선택을 받았다. 학점(29.1%), 인턴(28.2%), 학벌(23.1%), 토익점수(17.4%)가 그 뒤를 따랐다. 채용 과정에서 스펙을 고려해야 할 직종으로는 연구직(48.1%), 고려하지 않아도 될 직종은 서비스직(42.7%)·생산기술직(30.7%) 등이 거론됐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 담당자 대다수(93.0%)는 학벌·학점·토익점수·어학연수·자격증·봉사활동·인턴·수상경력으로 대표되는 '취업스펙 8종 세트'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했다. /연남뉴스

▲ 코스피지수 1957.32 (+4.04)	▲ 코스닥지수 517.83 (+1.86)	▲ 금리(국고채 3년) 2.89% (-0.02)	▲ 원·달러 환율 1063.40원 (+0.70)
----------------------------	---------------------------	-------------------------------	-------------------------------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왕장 출연) **결혼 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성사율 호남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입, 전주고등학교출입) **서울대역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번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업,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번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전주시 서신동) (063) 275-7766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을행영 무례류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